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기 '광양사용 설명서'

광양제철소, 단체·개인 견학프로그램 운영...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예약 장도박물관, 칼 만들기 체험·전시...공시장, 활·화살 제작과정 안내

“여름방학 역사기행, 장인체험 광양에서 하세요.”

광양시가 건강하고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고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광양사용설명서'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에는 광양제철소, 광양장도박물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등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송고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품격 높은 산업·문화공간이 가득하다.

광양제철소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철을 1538도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강판 전문제철소로 단일 공장 규모 세계 최대 조강 생산량을 자랑한다.

광양제철소는 단체(월·금)와 개인(토요일)으로 구분해 철강해설사와 함께하는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광양장도박물관은 3대째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鎗刀匠)의 맥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전시, 체험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장도(鎗刀)는 강철을 1000도 이상의 불에서 달구고 두드리는 등 177번의 공정 끝에 탄생하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장도를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장도장이라고 한다.

광양장도박물관은 수십 번 담금질하고 버린 칼에 우직하게 일편심을 새겨가는 장인정신이 흐르는 공간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주는 산교육장이다.

광양 공시장(무형문화재 제12호)의 기능을 이어가는 광양공시전수교육관도 유익한 방향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 또는 사람으로, 광양공시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야 하는 화살의 기본 성능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결과로 명성이 높다.

전수관에는 활과 화살, 제작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김기 공시장과 김철호 전수자가 2대를 이어 공시를 제작하며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천황현생가, 이균영 문화동산, 운동주 유고보존장병욱 가옥 등은 광양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

는 인문공간으로 지식인의 고뇌와 책무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봉강 석사리의 매천 황현 생가에서는 경술국치에 통탄하며 절명시 4수를 남기고 분연히 자결한 지식인이자 실천가인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의 높은 정신을 만날 수 있다.

광양읍 우산공원에 있는 이균영 문화동산은 이상문학상과 단재학술상을 수상한 광양 출신 이균영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자부심을 심어준다.

운동주의 유품시고를 지켜낸 '운동주 유고보존장병욱 가옥'은 일제강점기 이극의 형무소에서 순국한 운동주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부활시킨 역사적 장소다. 인근 '운동주 시정원'을 거닐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의 시들을 감상하고 별에는 다리를 건너 배알도 섬 정원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광양와인동굴, 광양에코파크, 광양부영국제빙상장 등 온 가족이 함께 신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무더운 여름방학을 자칫 집에서만 보내기 쉬운데 광양의 생생한 산업, 문화, 역사 공간들을 찾았다면 생각의 근육을 기르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대 조강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철의 생산과정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는 등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백운산 4대계곡, 농촌체험휴양마을, 광양 불고기 등도 특별하고 맛있는 여름방학을 계획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

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오는 29일 오후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 '낭만버스킹 썸머페스티벌'이 열린다. 낭만포차 거리에서 펼쳐진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무대. <여수시 제공>

여수 밤바다 적시는 '낭만 버스킹'

29일 낭만포차 거리서 썸머페스티벌...춤·악기·밴드 공연 등

여수 낭만포차(중화동) 거리에서 오는 29일 '낭만버스킹 썸머페스티벌'이 열리며 여수 밤바다를 선율로 수놓는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밤 9시 30분까지 춤과 악기, 마술, 밴드 공연 등 다양

한 무대가 펼쳐진다. 흥복기와 김성수 등 가수 무대도 이어진다.

같은 날 인근 종포해양공원 주무대에서는 전남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실버마이크 축제'가 열린다.

여수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목·일요일 낭만포차거리와 종포 해양공원에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행사를 연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낭만포차와 밤바다 등 여수 대표 관광 요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축제로 준비했다”며 “한여름 열기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낭만버스킹 페스티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청년 유출 방지' 맞춤형 정책 발굴



곡성군이 최근 연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이상철(가운데) 곡성군수가 인사말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정책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곡성군이 연말까지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곡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이상철 곡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이상철 군수와 곡성군의회의, 청년정책위원회, 전남과학대학교, 광주전남연구원, 청년연합회, 협동조합 등 출신 30여 명이 참석했다.

곡성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청년 기본 현황과 실태, 특성 분석, 청년인구 유입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인구감소 대응 청년 유출 방지 정책과제 도출, 맞춤형 지역 특성과 청년정책 발굴,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와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등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청년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들 및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고흥 수산물 '신호등' 운영 방사능 안전 정보 전광판에 공개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으로 공개한다.

고흥군은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안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고흥읍 고흥종합병원 로터리, 도양읍 읍민회관 및 바다정원의 옥외 전광판에 표시하기로 했다.

또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산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자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고흥군 누리집에 수산물 안전 신호등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생산·판매 단계의 수산물을 수집해 방사능 검사를 요청했고, 지난달까지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꿀벌 농가 '웰니스 활성화' 협업

꿀벌 공기 호흡 치료·이동식 통나무집 체험 등 진행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참새미골 농업체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양봉 농가 선보이는 '꿀벌 공기 호흡 치료'를 체험하고 있다.

구례군이 건강을 챙기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산업 활성화를 지역 꿀벌 농가와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지리산 천은사 아래 참새미골 농업체험마을(광의면 방광리)에서는 '꿀벌 공기 호흡 치료'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체험에는 김수철 구례군의회 부의장과 구례군 웰니스 관광 전문가, 마을 이장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농업회사인 양봉 농가 '하니비테크'는 벌통 속 공기 흡입과 이동식 통나무집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벌통 속 공기를 벌통 밖에 장착된 흡입기와 고무

관을 이용해 10~15분 호흡하는 방식이다.

꿀벌 공기 호흡 치료는 고대 이집트에서 활용해 온 기법으로,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쓰이고 있다.

폐암과 기관지 전식, 아토피,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좋은 기법으로 알려졌다.

김찬곤 구례군 양봉협회 지부장은 “코로나19 확산기에 꿀벌 공기 호흡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김수철 구례군의회 부의장은 “양봉과 웰니스 관광을 결합하는 농업 치료 관광에 대한 의회 차원 지원책을 강구해내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노사민정협의회, 분규 중재 나섰다

위원 17명 4시간 회의...노사 현안 의견 청취·조정방안 제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1일 '2023년도 2회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광양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노사분규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3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 현안 의견 청취,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조정방안 제시, 노사민정협의회 발원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광양 산업현장에서는 ▲㈜포운의 '사회적 합의 협약서'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여부 논쟁 ▲포트엘유의 전면파업에 기인한 직장폐쇄 문제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의 부분 파업 실시 등 현안이 대두됐다.

협의회는 노·사 대표 4명을 임시 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의견을 듣고 갈등 요인을 파악했다.

협의회는 전남담배(태스크포스)를 꾸려 ㈜포운의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단체협약과 이행 여부를 다 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포트엘유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구성해 임금협상과 유회 수용 등에 대한 협상을 돕는다.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임금협상 부분도 더 조정의 시간을 갖고, 협의회가 지속해서 양측에 접촉할 방침을 세웠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勞) 4명, 사(社) 4명, 민(民) 5명, 정(政) 4명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는 분회의를 비롯한 실무협의회와 3개 분과위원회(지역경제산업·고용평등·노사상생)로 구성됐다.

노사갈등 해소·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 관계 발전,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노사 문제는 먼저 노와 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측이 모두 살아야 하기에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면 좋겠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